백화점 봄 세일 '실속없는 매출 신장'

고환율로 값오른 명품·주류 위주 팔려

의류 판매 부진 … 3~5% 신장 그쳐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올해 첫 정기세일이 예상 밖의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해 매출보다 3~5% 정도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회복으로 보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 매출주도 품목은 할인폭이 최대 60%인 와인 등 주류, 고환율로 값이 오른 명품과 외제 화장품 등이다. 남성정장 등 마진이 높은 의류 부문에서는 아직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신장'이다.

지난 3일 시작된 광주지역 백화점의 봄 정기세일은 12일로 중반을 넘어섰다. 백화점별 매출을 중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광주 신세계는 3.3%, 롯데 광주점은 5% 각각 늘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은 '와인 창고대 방출전'에 힘입어 주류 매출이 60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스포츠의류 매출도 37%나 늘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호황을 누렸던 명품 잡화와 화장품도 각각 35%, 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환율 인상 영향뿐만 아니라 비싸더라도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의류부문 매출은 품목별로 희비가 교차됐다. '빈폴', '폴로', '헤지스' 등 트래디셔널 캐주얼(영국의 전통복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정장풍 의류)이 26%나 급증했고 청바지 등 진캐주얼도 19% 올라 매출 상승에 기여를 했다.

반면 비즈니스 캐주얼 문화의 확산으로 신사복, 넥타이 등 남성정장 부문 매출은 17% 줄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명품·화장품 부문 매출이 약 40% 오르면서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여성의류 부문 매출이 6~17%가량 오르면서 오랜 매출 부진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남성의류의 경우 정장은 12%, 골프·레저 부문은 7%가 하락했다.

그렇지만, 매출을 주도하고 있는 명품과 화장품의 경우 고가인데다 고환율의 수혜 품목이라는 점에서 실속있는 매출 증가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백화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소비 지표의 바로미터 격인 의류가 품목별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이 팔리면서 매출이 올라야 소비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고환율로 값이 오른 명품이 팔린 것이 매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 실속이 없다"며 "의류매출 증가 조짐은 최악의 소비침체는 지난 것이 아닌가 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기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삼성 '자이제니아 6기' 모집 삼성전자가 IT 마케팅리더 '자이제니아 6기'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자이제니아 6기'는 PC 신제품 체험과 마케팅 실무교육, IT 봉사활동, 전시회 서포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지난달 노후차 말소했다면? … 혜택 없다

기존차 남편에 팔고 새차 사도 감세 대상

■ 車감세 … 문답풀이

정부가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어떤 경우에 세(稅)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자세한 지원대상 포함 여부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알아본다.

- 지난달 노후차를 말소했는데 5월1일 이후 신차를 구입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받을 수 없다. 12일 현재 기준으로 노후차를 보유하 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올해 12월 말 신차를 사고 내년 2월 말까지 갖고 있던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 말까지 새 차를 사고 구입시점에서 2개월 내에 기존 갖고 있던 노후차를 처분하면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차량을 부부끼리 팔고 새 차를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그렇다. 특수관계인간 거래도 양도로 인정된다.

- 노후차 한 대를 팔고 차를 새로 두 대 산다면 두 대에 대해 모두 세금 지원받을 수 있나.

▲한 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차 한 대당 한 대의 신차에 대한 세금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 노후차를 두 대 가지고 있고 새 차 두 대를 산다면 새 차 두 대에 대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작년 12월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30% 인하했다.

▲5월1일부터 6월 말까지는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오늘 발표한 세금인하 정책이 병행된다. 소비자는 두 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세금 감면 외 추가적인 할인은.

▲완성차 회사들이 최대한 추가적인 할인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부 차종의 경우 세금 감면폭과 비슷한 액수를 할인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기아 포르테 140만원·오피러스 250만원

현대차 아반테 137만원·그랜저 250만원

■ 車값 얼마나 깎이나

정부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싸게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차종별 임시 감세 계산치를 보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137만~250만원의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차종별 감세 규모를 보면 기아차는 포르테 1.6 Si가 140만원, 로체 LE X 20 고급형 183만원, 쏘울 2U 고급형 143만원, 오피러스 GH330 최고급형 250만원, 스포티지 TLX 최고급형 199만원, 모하비 QV300 최고급형은 250만원이다.

현대차는 아반떼 1.6 럭셔리 137만원, 쏘나타 2.0 트랜스폼 190만원, 그랜저 2.7 럭셔리와 제네시스 3.8 럭셔리 및 에쿠스 4.6 프레스티지, 싼타페 2.2 MLX 기본형, 베라크루즈 300VX 등은 모두 250만원이다.

GM대우의 경우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토스카 CDX는 204만원 , 윈스톰 4WD LT고급형 213만원, 라세티 프리미어 CDX 고급형은 15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르노삼성은 SM3 NEO 106만원, SM5 LE PLUS 164만원, SM7 RE 2.3 248만원, SM7 RE3.5와 QM5 4WD 2.0RE(디젤)는 250만원씩 감세된다.

쌍용차는 체어맨 W CW700 프레스티지, 체어맨 H 600S 최고급형, 렉스턴 RX6(4WD) 최고급형이 모두 250만원에 카이런 LV6은 190만원, 액 티언 CLUB(2WD)는 156만9천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한다.

수입차 중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을 포함한 프리미엄 브랜드는 모두 250만원 세금이 감면되고 2천만원대 차종은 국산차와 비 슷한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천97만원 가량이던 BMW 528 모델을 6천847만원에, 렉서스 ES350 모델은 기존 5천995만원이던 것을 5천74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올 광주·전남 주택 1만8천가구 공급

올해 광주·전남 1만8천748가구 등 전국적으로 43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2009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택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주택 공급 목표는 43만479가구로, 이 중 광주에는 1만337가구, 전남은 8천411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에 공급된 1만4천794가구(광주 3천945가구·전남 1만849가구) 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주택유형별로는 광주의 경우 공공분양 2천504가구, 민간분양 6천555가구 등 분양주택이 9천59가구로 가장 많다.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은 1278가구이다.

지난해 전혀 없었던 주택공사 등의 공공분양 물량이 2천가구 이상 대폭 늘어났고 민간분양 물량도 지난해 실적치(1천178가구)보다 대폭 늘려 잡았다.

정부는 올해도 주택건설 부진으로 중장기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공급 확대하는데 따른 우려도 크다.

한편,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광주 101.5%, 전남 109.9% 등으로 나타났고 전국 보급률도 100.7%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08 시·도별 주택보급률 〈단위:%〉

구분	보급률	구분	보급률
전국	100.7	경기	96.0
수도권	95.4	강원	110.5
서울	93.6	충북	109.3
부산	100.0	충남	110.5
대구	103.0	전북	110.7
인천	99.7	전남	109.9
광주	101.5	경북	109.9
대전	98.5	경남	104.4
울산	104.9	제주	96.7

지역전략산업 컨설팅

연말까지 90억 지원

지식경제부는 12일 호남경제권 등 광역 경제권별로 지역전략산업 기업들이 경영컨설팅 등 지식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5개 분야를 확정하고 연내 90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서비스는 디자인과 이러닝, 정보기술(IT) 서비스, 시험·분석 , 컨설팅 등이며 지원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제외한 '5+2 광역 경제권' 단위로 이뤄지게 된다. 사업 신청은 수요기업이 지식서비스 공급기업을 선택해 해당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4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역 상장사 현금 자산 1년새 10% 늘어

작년 14개社 2,581억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현금성 자산이 1년사이에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12월 결산법인 14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2천581억원으로 2007년 말(2천352억원)보다 229억원(9.75%) 증가했다. 2006년 말(1천935억원)에 비해서는 646억원(33.3%)이나 늘었다. 1사 평균 현금성 자산 보유 규모도 184억원으로 조사됐다.

현금성 자산이란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물론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자금 운용 목적의 1년 이내 '단기금융 상품'을 포함한 것이다.

한편 현금성 자산 보유 상위 5개사는 광주신세계(948억원), KPX화인케미칼(510억원), 금호산업(417억원), 화천기공(167억원), 금호타이어(121억원) 등의 순이다. 1년동안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순위는 광주신세계(303억원), KPX화인케미칼(131억원) 등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